與 "검사 탄핵 부당" vs 野 "민주 "김여사 불기소로 檢 사망"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국감…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공방

국힘 "총장 탄핵, 검사 겁박 의도"…민주 "檢,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 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심 총장을 향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심 총장은 "검사가 탄핵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심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면,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며 "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디올백 사건 면죄부로 모든 국민에게 '공직자 아내는 300만원 디올백을 받아도 된다' 는 인식을 줬다.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한 것"이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 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회담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안…구체 일정은 추후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 대표 측 박정하 비서실장은 21일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 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에 흔쾌히 응하겠다' 는 한 대표의 입장은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9월 1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 24.1% '출범후 최저'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72.3% 종전 최고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내린 것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p↓), 부산·울산·경남(7.1%p↓), 서울(3.3%p↓) 등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고, 광주·전라(5.8%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6.3%p↓), 30대(2.6%p↓), 60대(1.2%p↓)에서 내려갔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5%p↓), 보수층(1.6%p↓)에서 하락했고, 진보층(1.1%p↑)에서는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72.3%로, 종전 최고치(71.3%)를 경신했다. 또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3%, 더불어민주당이 44.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상승했고 민주당은 0.3%p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4%, 개혁신당 4.6%, 진보당 1.3%, 기타 정당 1.8%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2.9%,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국감 현장

조인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원천 차단해야"

수십억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 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5121건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불법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늘고 있어 수조원 이상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특별한 제재가 없어 청소년이 성인물, 폭력물 등을 볼 수 있고,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불법 사이트들은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서삼석 "해경, 함정에 전기차 진화 장비 없어"

해양경찰이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는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없으며,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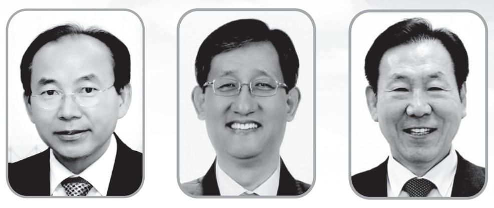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 장비가 없는 탓에 선박을 육지로 옮긴 뒤 소방청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목포-제주간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운행해 육지에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만 수행했다.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전기차 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 상태로, 어떻게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 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 형 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